

데이터경제 활성화
‘데이터거래소’ 출범

금융보안원

금융보안원은 11일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거래소’를 출범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날 출범식에는 손병두 금융위부위원장을 비롯해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신용정보원, 코스콤, 보험개발원, 신한은행, 신한카드, KCB, SKT 등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또한 이날 ‘데이터 유통·활용 혁신 MOU(5개 유관기관)’과 ‘금융-통신 융합데이터 상호협력 MOU(금보원-SKT)’를 체결하고, 총 13건의 데이터 거래소 데이터 시범거래 현황도 발표했다.

데이터거래소는 공급자와 수요자가 상호 매칭해 비식별정보·기업정보 등의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곳이다. 금보원은 우선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중개 시스템을 시범운영하고, 이를 통해 정보유출 방지 등 보안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데이터거래소는 금융정보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가 함께 거래될 수 있도록 통신, 유통 등 일반 상거래 기업도 참여 가능하다. 이용자 편의를 위해 데이터 검색, 계약, 결제, 분석 등 유통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김병탁 기자 kbkt4@meconomynews.com

“1명 정년 늘리면 청년일자리 0.2개 준다” KDI

“고령층 고용은 0.6개 늘지만 부작용 상당” 분석
文 “임기내 계속고용제 도입”… 경영계 “고용부담”
“100인 이상 기업서 역효과 뚜렷… 유연한 정책을”

인구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라 정년 연장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청년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오는 정년 연장 논의를 미룰 수 없다는 태도다. 현 정부에서 시행하진 않더라도 ‘계속고용제도’ 같은 고용 연장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4일 내놓은 KDI 정책포럼에서 ‘정년 연장이 고령층과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효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요셉 KDI 지식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해당 보고서에서 정년 연장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고 했다.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2018년 이래 감소세로 돌아섰고 앞으로 10년 이내 취업자 감소 현실화가 예상되는 만큼 인적자본 활용의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고령가구의 소득·소비의 하락을 막는 한편 연금을 받는 나이가 65세로 점차 높아지는 중이어서 퇴직 이후 소득 공백을 줄

이기 위해서라도 정년 연장은 필요하다. 대법원은 지난해 초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65세로 높인 바 있다.

한 연구위원은 고령자고용법이 2013년 개정돼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60세 이상 정년이 의무화됨에 따라 고용보험 자료를 토대로 사업체 단위에서 정년 연장의 영향을 분석했다.

한 연구위원은 분석을 통해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를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10~999인을 고용하는 민간기업에서 정년 연장 이후 나이별 고용증가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정년 연장 예상 수혜자가 1명 늘 때 고령층(55~60세) 고용이 0.59명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고령층 고용증가 효과는 규모가 큰 100인 이상 기업에서 100인 미만 기업보다 크게 나타났다”면서 “정년 연장이 없을 때 고령층 고용증가는 0.16명에 그쳤다. 3.5배 차이가 났다”고 부연했다.

반면 정년 연장으로 고령층 고용이 늘면서 청년층(15~29세) 고용은 0.22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왔다. 상대적으로 규



한요셉 KDI 지식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정년 연장으로 고령층 고용이 늘면서 청년층(15~29세) 고용은 0.22명 감소한다”고 밝혔다. 사진=시장경제DB

모가 큰 100인 이상 기업에서 청년 고용 감소가 뚜렷했다. 10~99인 기업은 0.03명 증가했지만, 100인 이상 기업은 0.19명, 500~999인 기업은 0.26명 각각 줄었다.

청년 고용 감소는 정년 연장의 폭이 컸던 사업장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기존 정년이 55세 이하인 사업장에서선 청년 고용이 0.39명으로, 10~999인 기업 평균보다 1.8배 더 감소했다. 기존 정년이

58세 이상인 사업장에선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 감소로 거의 이어지지 않았다. 공공기관은 사정이 달랐다. 공공기관은 청년 취업자 고용 의무가 있는 데다 2015부터 임금피크제(이하 임피제)가 확대 시행 중이어서 임피제로 아낀 재원으로 신규 채용이 이뤄지고 있었다. 한 연구위원은 “공공기관은 정년 연장으로 오히려 청년층 고용이 크게 늘었다”면서 “다만 임피제와 신규 채용이 병행

되면서 중간 나이대 고용은 감소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중간 연령대에서 결원이 생겨도 충원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나이별 고용 변화 분석을 보면 55~60세는 정년 연장으로 0.40명, 15~29세는 1.22명 각각 채용이 늘었다. 반면 35~39세와 40~44세는 각각 0.56명, 0.58명 고용이 감소했다.

임정환 기자 eruca@newdailybiz.co.kr

Cannes Lions 수상작 지면 전시

A NAVY SAILOR
KISSING A STRANGER
IN TIMES SQUARE
SHOT ON A LEICA



“기업 생산성 다 죽여놓고… 민주당 “3차 추경”

규제로 발 묶어놓더니
세금 빛잔치로 지원책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속도를 냈다.

김태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자리 문제, 소비와 수출의 감소 등 한국경제 위기를 거론했다. 그러면서 “3차 추경이 대단히 시급하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3차 추경에 속도를 낼 것이고 그 핵심은 일자리 지키기”라고 강조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3차 추경에 속도를 보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정은 바로 3차 추경 편성 및 처리 준비를 시작하고, 코로나 이후 변화된 세상을 재도약의 기회로 활용하도록 치밀하고 과감한 전략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은 여야가 12조원 규모의 2차 추경에 합의한 날이다.

‘3차 추경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하면서 여당의 당면과제가 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28일에 이어 12일 국무회의에서도 “3차 추경도 곧바로 추진해주시 바란다”고 주문했다.

고용충격, 제조업과 지역경제 살리기 등을 위해서라는 것이 문 대통령이 말한



사진=국회

‘추경 필요성’이었다.

정부의 추경 추진에 일부 통합당 의원들은 난색을 표했다. 장제원 통합당 의원은 앞서 2차 추경 당시 “곧 3차 슈퍼 추경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나랏빚이 1700조원에 육박하고, 국제비율이 곧 45%를 돌파할 것이라고 한다”며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환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는 추경이 일시적인 미봉책인 것은 맞지만 지금 경제상황이 워낙 엄중해 안 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추경이 단

순 빚잔치로 끝날지, 아니면 좋은 투자가 될지는 그 돈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적시 적소에 쓰이느냐에 따라 사후적으로 평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본적으로 “기업들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여 고용이 확대되도록 정부의 정책이 이루어져야 했는데, 위기 전부터 현 정부의 정책이 생산적이지 못했다”며 “현재는 어쩔 수 없이 정부가 지원금을 주며 고용을 유지하라는 방식밖에는 대안이 없는 처지”라고 우려했다.

김현지 기자 hjwajui@naver.com

“코로나 극복위해 법인세 인하 필요”

손경식 경총 회장 주장
해외 손실 본사서 떠안아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13일 “현시점에는 우리 기업들이 경영 위기를 버티면서 살아남아 고용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이 총동원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의 이런 발언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유동성 지원이 필요하다는 재계의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풀이된다.

손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회장단 회의에서 “세계 경제가 내년 이후까지도 코로나19 이전 상태로 회복되긴 어려울 것 같다”

며 이같이 주문했다.

손 회장은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과 같은 상황의 호전 없이는 경제활동이 계속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수출입 의존도가 세계 최상위권이고 글로벌 공급망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그만큼 실물경제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지난달 수출이 작년 같은 달보다 24.3% 감소했고, 2분기에는 기업의 매출액 격감과 영업이익의 대규모 적자 전환, 소비, 생산, 투자, 고용 등 실물경제 지표의 악화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손 회장은 “세계 각지에 생산 기지를 두고 있는 국내 기업의 경우 해외공장 가동중단에 따른 손실까지 국내 본사에서 감당해야 한

다”며 “앞으로도 경영안정자금과 유동성 지원이 필요한 만큼, 충분한 규모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고용의 질과 양을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 규제개혁, 협력적인 노사관계 정립 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 회장은 “법인세를 경쟁 제조업 국가들의 수준과 글로벌 기준을 고려해 상당 수준 인하해야 한다”며 “다른 선진국들과의 글로벌 기준에 맞춰 대등하고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하고 보다 유연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노동제도를 만들어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회장단 회의는 경총이 지난 2월 정관 개정을 통해 ‘공식 회의체’로 격상된 이후 처음 열렸다.

배소라 기자 bsrgod78@meconomynews.com



SOFORT INSTANT CAMERA. THE LEICA MADE FOR FUN.
LEICA STORE BOSTON 74 ARLINGTON ST

Print & Publishing Bronze Lion Campaign

Title: KISS 키스
Client: LEICA STORE BOSTON 라이카 스토어 보스턴
Agency: ARNOLD WORLDWIDE, Boston
Product: CAMERAS 카메라

COPY: A Navy Sailor Kissing a Stranger in Times Square
Shot on a LEICA
타임스퀘어에서 낚신에게 키스하는 해군선원 라이카 카메라로 담다